

제36장 공자(孔子)시대 (1)

장강과 회수, 한수 일대를 중심으로 초(楚)나라와 오(吳)나라가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는 동안, 황하를 중심으로 한 북방의 중원지대에는 한 사내가 등장하여 조용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사내의 성은 공(孔),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공구(孔丘)나 공중니(孔仲尼)라고 부르지 않았다.

한결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름하여 '공자(孔子)'였다.

- 공자.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성(大聖)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요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자와 더불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공자는 영생불멸의 성인이다.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仁)'과 '예(禮)'다.

특히 예에 대해서 강조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야하는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예(禮)'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창한 것이 '극기복례(克己復禮)'다.

극기란 자기 자신의 완성이요, 복례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말함이다. 자신을 먼저 세워야 예(禮)가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요, 예가 서야 인(仁)이 행해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자(孔子)는 설파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자(孔子)는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사상을 꽃피우지는 못했다. 공자의 사상, 즉 유학(儒學)이 전성을 이룬 것은 한(漢)나라 때였다. 그는 사후에야 세상을 뒤흔드는 사상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자의 사상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공자(孔子)가 태어나 성장하고 활동하던 시기는 두말할 나위없이 춘추시대 후기다.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성행하고, 권모술수(權謀術數)가 판을 치던 어지러움의 시대, 이 시대에 과연 공자가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행로를 밟았는지를 잠깐 보여주고자 할 뿐이다.

공자(孔子)는 BC 551년(노양공 22년) 노나라 추읍(鄒邑)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양공 22년이라면 진(晉)나라 권력 대부 중의 한 사람인 난영이 진나라에서 축출되어 제(齊)나라로 망명한 바로 그 해다.

<사기>나 <춘추좌씨전>은 모두 이 해를 공자 출생의 해로 잡고 있으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은 1년 앞당긴 BC 552년을 공자 출생의 해로 기록하고 있다.

공자의 선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송나라 귀족이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춘추시대 초기 송나라에 공보가(孔父嘉)라는 사람이 있었다.

송상공(宋殤公) 시절, 그는 태재인 화독(華督)의 공격을 받고 멸족을 당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혈육 하나가 있었다. 충복의 품에 안겨 겨우 목숨을 구한 그 혈육의 이름은 목금보(木金父).

충복은 목금보를 끌어안고 노(魯)나라로 탈출했다.

그 뒤 목금보는 노나라에 살면서 다시 성을 공(孔)으로 바꾸었는데, 그가 바로 공자의 6대조라는 것이다.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는 공자의 선조로 3대조인 공방숙(孔防叔)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 공방숙이다.

방숙(防叔)은 백하(伯夏)를 낳았고, 백하는 숙량홍(叔梁紇)을 낳았다.

이 숙량홍(叔梁紇)이 바로 공자의 아버지다.

숙량홍의 신분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士)였다. 사라고 하면 얼핏 선비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 무렵은 아직 문무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선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士)는 훗날 선비와 무사 두 신분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보다 한 단계 아래로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분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이다. 제나라의 명재상 안영의 아버지 안약(晏弱)도 사(士)였다. 부역을 나가는 평민보다는 위다.

숙량홍(叔梁紇)은 사(士)의 신분으로서 무예가 뛰어난 용사였다.

힘도 셧다. 그는 젊었을 적 싸움터에 나가 무너져 내리는 성문을 혼자 두 손으로 떠받칠 정도의 용맹을 과시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숙량홍(叔梁紇)은 원래 노나라 시씨(施氏) 집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시씨와의 사이에 딸만 여럿을 낳고 아들은 낳지 못했다. 그래서 첩을 두었는데, 첩의 몸에서 아들 맹피(孟皮)가 태어났다. 그러나 맹피는 백치인데다가 다리를 못쓰는 불구가 되었다.

숙량홍(叔梁紇)은 다시 여자를 얻기로 하고 안씨(顏氏) 집에 매파를 보냈다. 이때 숙량홍의 나이 60이 넘지 않았을까.

안씨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딸이 다섯이나 있었다. 안씨는 이미 노인이된 숙량홍에게 딸을 주기가 싫었다. 그렇다고 숙량홍의 청혼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딸 다섯을 불러놓고 물었다.

- 너희들 중 누가 숙량홍(叔梁紇)에게 시집갈 테냐?

위로 네 딸은 묵묵부답이었다. 가장 어린 막내딸 징재(徵在)만이 대답했다.

- 여자는 출가하기 전 아버지의 말씀을 좇을 뿐입니다. 저희들에게 물을 것 없이 아버지께서 정하십시오.

안씨(顏氏)는 그말을 듣고 막내딸 징재를 숙량홍에게 시집보냈다.

숙량홍(叔梁紇)은 징재와 혼인했으나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늘 근심이었다. 이에 그들 부부는 중니산(仲尼山)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하루는 그들이 중니산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풀과 잎들이 그녀를 향해 꺾꽂이 일어섰다. 또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올 때는 풀과 잎들이 다 아래로 처졌다.

'이상한 일이로군.'

그 날 밤 징재(徵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흑제(黑帝)에게 불려갔다.

흑제란 거울의 신(神)이다. 북방의 신이기도 하다. 그 흑제가 징재에게 말했다.

- 그대는 성스러운 아들을 둘 것이다. 장차 공상(空桑)에서 태어나리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날 밤부터 징재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장재(徵在)가 비몽사몽간에 뜰을 바라보니 다섯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징재를 향해 말했다.

- 우리는 오성(五星)의 정령이다.

다섯 노인은 송아지만한 짐승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뿔이 하나였고, 온몸이 용 비늘 같은 무늬로 얼룩얼룩하였다. 짐승은 징재(徵在)를 향해 엮드리더니 옥척(玉尺)하나를 토해냈다. 옥척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수정(水精)의 아들은 쇠약한 주(周)나라를 계승하여 소왕(素王)이 되리라.

소왕이란 무늬없는 옷을 입은 왕, 즉 지위없는 왕을 말함이다.

징재(徵在)는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여 비단 끈으로 그 짐승의 뿔을 곱게 매주었다.

그 날 저녁, 징재(徵在)는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 숙량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숙량홀이 말했다.

- 그 짐승은 기린(麒麟)이었을 것이오.

해산달이 되었다.

징재(徵在)가 숙량홀에게 물었다.

- 공상(空桑)이란 곳을 아십니까?

- 남산(南山)에 빈 도랑이 있는데, 그 곳에 돌로 된 굴이 하나 있소. 그 굴 속에는 물이 없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공상이라고 부른다오.

- 저는 그 곳에 가서 해산하겠습니다.

- 어째서 그 곳에서 해산해야 한단 말이오?

- 전날 꿈속에서 흑제(黑帝)를 보았는데, 흑제께서 공상에서 해산하라 명했기 때문입니다.

숙량홀(叔梁紇)은 징재를 데리고 남산의 공상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2)

그 날 밤 징재(徵在)에게 산기(産氣)가 왔다. 문득 하늘에서 창룡(蒼龍) 두 마리가 내려와 산 좌우를 지켰다. 또 공중에서 신녀(神女) 두 사람이 내려와 향로를 받들었다. 두 신녀는 징재를 목욕시킨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잠시 후 징재(徵在)는 아들을 낳았다.

이때 석문(石門)에서 맑은 샘물이 솟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샘물은 따뜻했다. 갓난아기를 목욕시키고나자 샘물은 다시 말라버렸다.

숙량홀(叔梁紇)은 기뻐하며 말했다.

- 이 아이는 중니산에서 기도를 드려 난 아이니, 이름을 구(丘)라 하고 자를 중니(仲尼)라 합시다.

산동성 곡부현에서 30리쯤 남쪽으로 가면 여릉산(女陵山)이라는 산이 있다. 지금도 그 산에 오르면 공자가 탄생했다는 공상(空桑)이란 곳이 있다.

이 탄생 일화는 상당히 설화적이고 꾸민 냄새가 난다.

유교가 국교화된 이후 그 시조에 대해 미화작업을 벌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반해 사마천(司馬遷)의 공자 출생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인간적이다.

흘(紘), 안씨와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다.

이구(尼丘)산에서 기도를 하여 공자를 얻었다. 노양공(魯襄公) 22년에 태어났다. 머리 중간이 움푹 패어 있었기 때문에 구(丘)라고 이름지었다.

자(字)는 중니(仲尼), 성은 공(孔)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합(野合)'이라는 말이다. 야합이란 말 뜻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는 설이 있고, 정식으로 결혼했으나 예(禮)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說)도 있다. 또 나이 차이가 너무 큰 결혼을 일러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역시 첫번째 설(說)이 가장 많이 통용된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고 있다.

공자(孔子)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숙량흘(叔梁紘)은 세상을 떠났는데, 공자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조차 무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덤을 가르쳐주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였을까.

이 답이 바로 야합(野合)이라는 것이다.

떳떳한 부부 사이였다면 어찌 남편의 무덤을 쉬쉬하고 숨길 것인가.

어쨌거나 공자(孔子)는 늙은 아버지, 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에게서 양육되었다.

공자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천했다.

희한한 것은 소꿉장난을 할 때 늘 제기(祭器)를 펼쳐놓고 예(禮)를 올리는 놀이를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례(祭禮)란 곧 학문을 말할 수도 있다. 당시의 학문에는 반드시 예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일화를 근거로 공자의 어머니는 무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설(說)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는 성년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야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고, 비로소 방산(防山)이라는 곳에 어머니와 함께 합장했다.

공자(孔子)는 키가 9척 6촌이나 되었다.

2m 가 넘는 상당한 거구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키다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학문과 높은 덕성은 젊어서부터 인근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알려짐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풍적이지는 않았다. 미리 말하면 공자의 명성이 중원 천지에 널리 알려진 것은 나이 50이 넘어서 행한 주유천하(周遊天下)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는 노(魯)나라 일부지역에서만 그의 학문과 사상과 성덕을 인정해주었을 뿐이다.

당시 청년들이 그러했듯 공자도 젊어서는 관직에 진출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위리(委吏), 즉 창고지기였다. 그것도 나라의 창고지기가 아니라 당시 집권자 중 하나인 계씨(季氏)의 관리인으로서였다.

그는 보잘것없는 말단관리였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위리에 이어 승진된 직책은 승전(乘田)이라는 관직이었다. 승전이란 목장 관리인인데, 그가 목장을 관리하면서부터 우마(牛馬)가 잘 번식했다고 사서(史書)들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공자(孔子)는 자신의 학문 정진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차츰 고관대작들

사이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자(孔子)가 성장하여 활동했던 시기는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였다.

특히 공자가 속했던 노(魯)나라는 하극상까지 만연하여 춘추시대 후기의 전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자가 관직에 진출했을 당시의 노나라 군주는 노소공(魯昭公)이었다. 그런데 노소공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허수아비 군주였다.

나라의 실권을 쥔 사람은 계손씨(季孫氏),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였다.

사람들은 이들을 삼환(三桓)이라 불렀다. 세 씨족 모두 노환공(魯桓公)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노환공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제양공(齊襄公)의 누이동생 문강(文姜)을 부인으로 삼은 군주다. 제양공과 문강은 오누이면서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노환공(魯桓公)은 제나라 땅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

노환공(魯桓公)은 비운의 군주였지만 그 자손은 수대에 걸쳐 번영하여 노나라 국정을 장악하였다.

노(魯)나라의 모든 정치는 이 세 가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군주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중에 노소공(魯昭公)은 자신의 권한을 찾기 위해 삼환 토벌의 싸움을 일으켰다. BC 517년(노소공 25년)의 일이었다. 이때 공자의 나이 35세.

그러나 노소공은 그 싸움에서 패했다. 그는 삼환에게 쫓겨 제(齊)나라로 망명을 했다.

삼환(三桓)은 새 임금을 세우지 않았다.

그냥 공석으로 놔두었다. 그래서 노(魯)나라는 이후 7년간 군주 없는 이상한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때 공자(孔子)도 노소공이 망명해 있는 제(齊)나라로 들어갔다.

노소공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생각은 없었다.

그가 제나라로 간 것은 삼환이 전횡하고 있는 노(魯)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제(齊)나라에서 관직을 얻으려고 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3)

제(齊)나라 귀족 중에 고장(高張)이라는 경대부가 있었다.

공자(孔子)는 고장의 가신으로 들어가 제경공(齊景公)에게 줄을 닿으려고 애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어 마침내 제경공을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제경공(齊景公)이 공자에게 물었다.

- 어떻게 하면 나라가 순조롭겠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평안합니다.

- 좋은 말이로다. 만일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을들 내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며칠 후 다시 제경공(齊景公)이 공자를 불러 물었다.

-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겠소?

- 정치의 핵심은 재물을 절약하는 데 있습니다. 검소하고 또 검소하십시오.
근검절약의 사상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경공(齊景公)은 공자의 말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를 이계(尼谿)라는 땅에 봉하려 할 때였다.
재상 안영(晏嬰)이 나서서 반대했다.
-무릇 유학자는 말재간이 있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거만하고 제멋대로여서 신하로 두기 어렵습니다. 검소를 강조하면서도 상례(喪禮)를 중시하여 장례를 한 번 치르면 파산까지 서슴지 않으며, 도처에 유세(遊說)를 다녀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 현자(賢者)가 사라진 이래로 예악이 붕괴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공자(孔子)는 용모를 성대히 꾸미고 의례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세세한 행동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몇 세대를 지나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주공께서 공자를 채용하여 제(齊)나라 풍속을 바꾸려 하신다면 이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약가라면 안영(晏嬰)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의 눈에 공자의 예의범절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위선적으로 비쳤다.
더욱이 제(齊)나라는 실리를 좇는 자유분방의 나라다.
반면 노(魯)나라 출신인 공자(孔子)는 형식과 예법에 얽매어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한마디로 제(齊)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이었다. 일종의 '공자 비판'이다.
제경공(齊景公)은 안영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공자를 불러 말했다.
- 나는 이제 늙었소. 그대를 등용할 수가 없소.
이에 공자는 제(齊)나라를 떠나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공자가 학숙(學塾)을 열고 제자들을 받아들여 일종의 교단(敎團)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 부터였다.
제(齊)나라에서 거절당하다시피 귀국한 공자였지만 그는 안영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 자신 제나라와 노나라의 풍속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는 안영(晏嬰)을 칭찬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안평중은 사람을 잘 사귀다.
오래 지나도 상대에게 경의를 잃는 일이 없다.
하지만 역시 정나라 명재상 자산(子產)을 극찬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단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다.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공자(孔子)가 귀국했을 때 노나라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가진 삼한의 대표자는 계손의여(季孫意如), 맹손무기(孟孫無忌), 숙손주구(叔孫州仇)였다.
그런데 이무렵 노(魯)나라에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삼한인 계손씨, 맹손씨, 숙손씨의 가재(家宰)들이 자신의 주인들을 제치고 또 다른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삼한(三桓)이 군주의 실권을 빼앗았듯 가신들이 삼한의 실권을 빼앗아버린 것이었다. 명을 내려도 가재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무렵의 삼한과 그 가신들의 관계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계손의여의 식읍은 비읍(費邑)이었으며, 그 관리자는 공산불뉴(公山不狃)였다.
 맹손무기의 식읍은 성읍(成邑)으로, 그 관리자는 공렴처보(公斂處父)였다.
 속손주구의 식읍은 후읍(郈邑)으로, 그 관리자는 약묘(若貓)였다.
 삼환(三桓)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 성은 높고 튼튼하기가 노(魯)나라 도성인 곡부(曲阜)에 조금도 뒤짐이 없었다. 그래서 노나라에는 네 개의 도성이 있는 듯했다. 삼환의 가신 중 가장 강성하고 횡포한 자는 계손의여의 살림을 맡아보는 공산불뉴(公山不狃)였다.
 계손의여의 가신 중에 또 한 사람의 실력자가 있었다.
 양호(陽虎)라는 가재였다. 양호는 <논어>에서 '양화(陽貨)'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양호(陽虎)는 공산불뉴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어깨가 수리 같았고, 이마가 매우 넓었다고 한다. 그는 장성하여 키가 9척이 넘었고, 힘도 세었으며, 피도 많았다.
 그는 공산불뉴와 더불어 계손씨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했다.
 그들의 권한은 점차 커져 마침내는 주인인 계손의여를 능가하게 되었다.
 공자 나이 42세 때인 BC 510년에 노소공(魯昭公)이 제나라 땅에서 죽었다.
 재위 32년이라고는 하지만 말년의 8년간은 군주자리에서 쫓겨난 상태로 있었다. 노소공이 죽자 노나라의 실권자 계손의여(季孫意如)는 노소공의 동생 송(宋)을 군주로 올렸다.
 그가 노정공(魯定公)이다.
 노정공 5년인 BC 505년, 계손의여가 죽고 그 아들 계손사가 계손씨의 당주자리에 올랐다. 이 해는 초나라가 진(秦)나라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에 빼앗겼던 수도 영성을 되찾은 해이다.
 당주가 바뀌는 어지러운 틈을 타 양호(陽虎)는 자신의 권한을 더한층 강화했다. 신임당주인 계손사를 감금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계손사는 양호와 협정을 맺고 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계손사는 가신인 양호에게 지배당하는 기묘한 처지에 놓인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쩌랴.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자는 양호인 것을.
 이렇듯 노(魯)나라 국정이 일개 평민이라 할 수 있는 가재(家宰)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자 노나라 전역에서는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4)

이 무렵, 노나라에 교묘한 변설가가 있었다.
 소정묘(少正卯)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소정묘는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 또한 청산유수였다. 그래서 삼환(三桓)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그런데 소정묘(少正卯)는 알고 보면 표리부동(表裏不同)하기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이러했다.
 계손사나 맹손무기 등 삼환의 당주들을 만났을 때는,
 - 경(卿)들이 군주와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공로는 실로 하늘보다 높습니다. 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돌아서서 삼환의 가신들인 양호(陽虎) 등을 만났을 때는,
 - 이래서야 나라 꼴이 되겠소? 어떻게 해서든 조정의 실권을 주공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 같은 사람이 삼환(三桓)을 몰아내야 하오.
 라고 부추겼다.

소정묘(少正卯)의 이간질로 인해 삼환의 당주들과 그 가신들 사이에는 더욱 미움과 의심의 골이 깊어갔다. 그러나 아무도 소정묘의 이러한 음흉함을 알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양호의 전횡이 심해지자 계손사(季孫斯)는 급기야 맹손무기를 찾아가 의논했다.

"어떻게 하면 안팎의 근심을 없애고 예전같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그 무렵 맹손무기(孟孫無忌)는 공자의 학숙에 들어가 예(禮)를 배우던 중이었다.

그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공자(孔子)는 학식이 높을 뿐 아니라 어질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공자를 등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손사(季孫斯)는 곧 공자를 불러 하루 종일 그와 대화를 나누어보았다.

과연 그의 마음과 도량은 바다와 같아서 그 밑바닥을 엿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창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마침 자신의 영지인 비읍에서 사람이 왔다.

계손사(季孫斯)는 안으로 들어가 비읍에서 온 가신을 만나보았다. 가신이 말했다.

"이번에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땅 속에서 양 한마리가 나왔습니다. 땅 속에서 어떻게 양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렇듯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손사(季孫斯)는 공자의 학식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다시 접견실로 나와 공자에게 물었다.

"제 영지에서 어떤 백성이 우물을 파다가 땅 속에서 개 한마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부러 양을 개로 바꿔 말한 것이었다.

그러자 공자(孔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땅 속에서 나온 것은 개가 아니라 양일 것이요."

계손사(季孫斯)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것이 양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듣건대 산에 사는 요괴는 다리가 하나인 기(夔)와 망량(魍魎)이고, 물에 사는 요괴는 용(龍)과 망상(罔象)이고, 흙 속에 사는 요괴는 분양(墳羊)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물을 파다가 땅 속에서 나온 짐승은 양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분양이란 어떤 짐승입니까?"

"분양(墳羊)은 양처럼 생겼지만 암컷도 수컷도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지요."

계손사(季孫斯)는 안으로 들어가 비읍에서 온 가신에게 물었다.

"땅 속에서 나온 양이 암컷이더냐, 수컷이더냐?"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암컷도 수컷도 아니었습니다."

계손사는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누가 공자의 학문에 미칠 수 있으랴!"

그러고는 공자에게 간곡히 청했다.

"그대의 깊은 학문으로 나를 도와주소요."

하지만 공자(孔子)는 그 무렵 학숙(學塾)을 운영하고 있었다.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글을 읽으며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다.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공자(孔子)는 모호한 대답을 남기고 자신의 학숙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일개 신하의 권력욕 충족을 위해 쓰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그런데 계손사와의 이 대화로 인해 공자의 학식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일화도 있다.

멀리 남쪽 초(楚)나라에까지도 공자의 이름이 알려졌다.

어느 날, 초소왕은 사신을 보내 많은 예물을 공자에게 바치고 물었다.

- 지난날 과인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서 이상한 과일을 건졌는데, 크기는 말(斗)만하고 빛깔은 해 처럼 붉었으며 쪼개어 먹어본즉 그 맛이 꿀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과일인지요?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그것은 평실(萍實)이란 과일ियो.

- 평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소. 평(萍)이라는 것은 물에 떠다니는 풀인데, 뿌리가 없소. 그것이 어쩌다가 서로 만나 엉키고 엉키어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러므로 백 년이나 천 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이요.

- 초왕께서 그 평실을 얻었다는 것은 흩어진 것이 모이고 쇠잔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징조요. 초(楚)나라를 위해서는 축하할 일이요.

사신은 초나라로 돌아가 초소왕에게 공자의 말을 전했다.

초소왕(楚昭王)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더욱 초나라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공자의 학문과 사상이 차츰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양호(陽虎)였다.

그 무렵 양호(陽虎)는 더 큰 야심을 품고 있었다.

계손씨의 가재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아예 난을 일으켜 자신이 직접 노(魯)나라 재상에 오르리라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숙손씨의 서자로 천대를 받고 있는 숙손첩(叔孫輒)이라는 인물을 포섭했다. 또 비읍의 관리인인 공산불뉴(公山不狃)에게도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세상 인심이 자신을 지지해줄지 장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모사(謀士)가 절실했다. 이 두가지 모두를 해결해줄 책임자로 양호(陽虎)는 공자를 점찍은 것이었다.

'공자만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그의 학숙에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까지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양호(陽虎)는 수시로 사람을 보내 공자에게 면회를 청했다.

하지만 계손사의 초청도 거절한 그가 아니던가.

공자(孔子)는 양호의 면회를 번번히 거절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5)

아무리 해도 공자(孔子)를 만날 수 없자 양호(陽虎)는 한 꾀를 내었다.

돼지 한 마리를 삶아서 공자(孔子)의 집으로 보냈다.

당시 관례로는 선물을 받으면 몸소 상대의 집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였다. 양호는 그때를 노려 공자를 설득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孔子)도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양호(陽虎)가 나를 꺾려고 돼지를 보냈구나. 선물을 받은 이상 그에게 가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양호의 집 문 앞에 숨어 있다가 그가 외출하거든 내 명자(名刺)를 그 집 문 안에 집어 넣고 오라."

명자란 오늘날의 명함과 같다.

제자는 공자가 시키는 대로 양호의 집으로 달려가 그가 없을 때 대문을 두드려 명자(名刺)를 전해 주고 왔다. 이리하여 끝내 양호(陽虎)는 공자를 끌어들이지 못했고, 공자는 양호의 유혹을 물리쳤다.

공자(孔子)는 양호가 머지않아 난을 일으킬 것임을 예감했다.

자신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맹손무기(孟孫無忌)를 불러 은밀히 암시했다.

"아무래도 조만간 난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자의 이 같은 말에 맹손무기(孟孫無忌)도 대뜸 '양호의 난'을 짐작했다.

그는 곡부성 남문 밖에다 집을 짓는다는 핑계를 대고 좋은 재목을 골라 넓은 목장을 만들었다.

그런 후에 씩씩한 장정 3백 명을 뽑아 목장을 지키게 했다. 또한 그는 공렴처보(公斂處父)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시했다.

"군사들을 완전 무장시키고 대기하라. 내가 기별하거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나를 도우라."

BC 502년(노정공 8년) 10월.

마침내 양호(陽虎)는 삼환을 제거하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실행에 옮겼다. 그의 계획이란 이런 것이었다.

'계손사를 죽이고 그 동생 계오(季癘)로 계손씨의 당주가 되게 하고, 숙손주구를 죽여 그 서자 숙손첩(叔孫輒)을 숙손씨의 당주에 오르게 하고, 맹손무기를 죽여 내가 맹손씨를 장악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계손사(季孫斯)부터 없애야 했다.

매년 10월이면 노나라 공실에서는 체제(禘祭)를 올린다.

체제란 나라의 큰 행사로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를 말한다.

노나라 재상인 계손사(季孫斯)는 체제를 준비하고 주관한다. 무척 힘들고 바쁜일인지라 체제가 끝난 후에는 연회를 베풀어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양호(陽虎)는 바로 이 위로연을 이용하기로 했다.

계손사를 찾아가 말했다.

"체제(禘祭)가 끝난 다음날 제가 주인을 위해 포포(蒲圃)에서 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꼭 참석해주시시오."

포포(蒲圃)는 곡부성 동문 밖에 있는 농원으로 계손사의 소유지였다.

평소 양호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손사(季孫斯)는 별 의심 없이 양호의 초청을 승낙했다.

그런데 양호(陽虎)가 계손사를 위해 연회를 주관한다는 소문을 듣고 의심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공자로부터 주의를 들은 맹손무기였다.

'어쩐지 수상하다.'

맹손무기(孟孫無忌)는 위험을 직감하고 자신의 식읍인 성읍 관리자 공렴처보에게 편지를 내었다.

- 체제(禘祭) 다음날 정오까지 군사 일대를 거느리고 남문 밖 농장으로 달려오라. 오는 도중 수상한 사태가 벌어지면 임의로 행동해도 무방하다.

종묘 제사는 무사히 끝났다.

그 다음날이었다.

애초의 계획대로 양호(陽虎)는 계손사를 데리러 그의 집으로 갔다. 계손사(季孫斯)는 포포로 나가기 위해 수레에 올랐다.

양호(陽虎)가 먼저 출발했고, 그 뒤로 계손사의 수레가 양호의 동생 양월의 호위를 받으며 따랐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손사(季孫斯)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수레를 호위하는 자들이 사뭇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마치 싸움터에라도 나가는 듯한 비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상하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다 다를까. 모두가 양호의 친인척들 뿐이었다. 다만 수레를 모는 임초(林楚)만이 자신의 심복 부하였다.

그제야 속으로 아차, 한 계손사(季孫斯)는 어차 임초를 향해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임초야, 너는 동문으로 수레를 모는 척하다가 능히 남문 밖 맹손씨의 목장으로 달려갈 수 있겠는냐?"

임초(林楚)도 호위 병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계손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수레가 큰 거리로 나섰다. 동문과 남문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였다.

별안간 임초(林楚)가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리며 채찍을 들어 말등을 후려했다. 놀란 말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수레를 이끌고 남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것은 뒤따라오던 호위 책임자 양월이었다. 그는 갑자기 계손사(季孫斯)의 수레가 남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수레를 멈춰라!"

임초(林楚)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욱 세차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제야 계손사(季孫斯)가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양월은 미친듯이 뒤쫓아가며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계손사의 수레가 어찌나 빠르게 달아나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계손사의 수레가 남문을 빠져나가 맹손무기의 목장 안으로 뛰어드는 데 성공했다. 계손사(季孫斯)는 맹손무기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며 숨이 턱에 차도록 외쳐댔다.

"맹손은 나를 도와주소. 나는 지금 쫓기고 있소."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맹손무기(孟孫無忌)는 곧 목장의 장사 3백 명을 담장 밑에 매복시켰다. 조금 지나자 과연 양월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목장을 습격해왔다.

맹손무기(孟孫無忌)는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30여 보쯤에 이르렀을 때 장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활을 쏘라!"

수백 대의 화살이 양월을 향해 날아갔다.

멋모르고 선두에 서서 목장을 향해 달려오던 양월은 눈 깜짝할 사이 고슴도치가 되어 수레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부하들도 반 이상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6)

그 시각.

앞서 동문을 향해가던 양호(陽虎)는 문득 뒤따라와야 할 계손사(季孫斯)의 수레가 보이지 않음을 알았다. 양월과 그 부하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양호(陽虎)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얼른 수레를 돌려 왔던 길을 다시 달렸다. 큰 거리까지 돌아갔으나 여전히 계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재상의 수레를 보지 못했는가?"

행인들이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재상의 수레를 물던 말들이 놀라 남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양호(陽虎)가 남문을 향해 달려가려는데 마침 겨우 목숨을 구한 양월의 부하들이 도망쳐왔다.

"양월 나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양호는 불같이 노했다.

"내가 삼환(三桓)을 죽여 생짜로 간을 씹어 먹으리라."

그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궁궁으로 달려가 영문 모르는 노정공(魯定公)을 끌어내었다.

"당장 궁중 군사를 소집하여 맹손씨(孟孫氏)를 공격하게 하시오."

노정공을 인질로 잡은 것은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궁을 나오는데 마침 숙손주구가 입궁하고 있었다.

양호(陽虎)는 칼을 뽑아 숙손주구의 목에 대고 말했다.

"경은 곧 경의 가병들을 이끌고 나를 도우시오."

숙손주구(叔孫州仇)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가병을 거느리고 양호의 뒤를 따랐다.

궁중 군사와 숙손씨의 가병을 확보한 양호(陽虎)는 곧장 남문 밖으로 나가 맹손무기의 목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맹손무기(孟孫無忌)는 활을 쏘며 대항했다.

양호가 멀리서 명했다.

"목장 담장에 불을 질러라!"

담장은 판자로 만들어져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맹손무기(孟孫無忌)는 하늘의 해를 쳐다보며 발을 굴렀다.

"공렴처보야! 어찌 정오가 되었는데 달려오질 않는 것이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저쪽 동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성읍 관리인인 공렴처보(公斂處父)와 그 군사들이었다.

"양호(陽虎)는 우리 주인을 해치지 마라. 여기 공렴처보가 왔노라!"

양호의 부하들과 공렴처보의 군사들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은 백중세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렴처보(公斂處父)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양호에게 강제로 끌려왔던 숙손주구(叔孫州仇)가 별안간 큰소리를 질러댔다.

"숙손씨의 가병들은 속히 역적 양호(陽虎)를 쳐라!"

그러고는 재빨리 인질이 되어 있던 노정공을 빼앗아 서쪽으로 달아났다.

동시에 맹손무기(孟孫無忌)가 3백 장사들을 거느리고 목장 안에서 달려나왔다. 뒤늦게 계손사의

가병들도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눈깜짝할 사이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양호(陽虎)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직감했다.

"퇴각하라!"

결국 양호는 곡부성을 탈출하여 양관(陽關)으로 도망쳤다. 양관은 지금의 태안현 동남쪽 땅이다.

그는 그 곳에서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계손사(季孫斯)는 삼환(三桓)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양관을 공격했다. 그 싸움에서도 양호는 패했다. 그는 더 이상 노(魯)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자 관문 밖에 불을 지르고 제(齊)나라로 망명했다.

그는 제경공(齊景公)에게 가서 말했다.

"신이 소유하고 있던 양관(陽關) 땅을 제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군후께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노나라를 쳐주십시오."

제경공은 양관 땅이 탐이 나 양호의 청을 승낙하려 했다.

그때 제나라 6경 중의 한 사람인 포국(鮑國)이 간했다.

"양호(陽虎)는 간사한 자입니다. 가신으로서 그 주인을 치려 했고, 이제는 남의 나라 힘으로 자기 나라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용납하면 그 화(禍)는 우리 제나라에 미칠 뿐입니다. 차라리 양호를 잡아 노(魯)나라로 보내십시오."

이에 제경공(齊景公)은 양호를 잡아 서쪽 변방에 가두었다.

그러나 양호(陽虎)는 집요한 자였다.

그는 옥리를 매수하여 술을 먹인 후 탈출했다. 짐수레를 훔쳐 타고 송(宋)나라를 거쳐 진(晉)나라로 달아났다. 진나라에서 그는 진나라 6경 중 한 사람인 조양(趙鞅)의 가신이 되었다.

이로써 '양호의 난'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양호가 조양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 진(晉)나라 조씨는 대대로 소란스러울 것이다. 사악한 자를 받아들여 가신으로 삼았으니, 어찌 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탄식이었다.

양호(陽虎)가 제나라를 탈출하여 진(晉)나라로 도망간 다음해인 BC 500년(노정공 10년) 여름, 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은 양호(陽虎)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즉 제경공(齊景公)은 양호의 제나라 탈출이 고의가 아님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고, 노(魯)나라는 노나라대로 양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양측의 뜻이 부합되어 제경공과 노정공은 협곡(夾谷)에서 회동하여 맹회를 열고 우호를 두터이 하기로 합의했다. 협곡은 축기(祝其)라고도 불리는 땅으로, 지금의 산동성 박산현 남쪽 일대다.

그런데 이 협곡 회맹과 관련하여 공자(孔子)에 관한 또 하나의 일화가 전해온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7)

제(齊)나라와 노(魯)나라는 적대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서로 사이가 나빴다. 협곡 회맹을 앞두고 양쪽 나라 대신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노정공(魯定公)이 출발하기 전 맹손무기가 노정공에게 간했다.

"제(齊)나라는 원래 속임수를 잘 쓰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가면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노정공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

"공자(孔子)는 예에 밝을 뿐 아니라 용기도 넘치는 군자(君子)입니다. 주공께서는 이번에 가실 때 반드시 공자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해보다는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일종의 천거였다.

노정공(魯定公)도 공자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를 불러 사공(司空)에 임명한 후 청했다.

"함께 협곡으로 가 과인을 보좌하십시오."

공자가 승낙하며 대답했다.

"모름지기 문(文)에는 반드시 무(武)가 따라야 합니다. 주공께서는 이번 협곡행에 대비하여 좌우 사마(司馬)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노정공(魯定公)은 신구수(申句須)를 우사마로 삼고, 악기(樂頎)를 좌사마로 삼아 병차 2백 승을 거느리고 공자와 함께 협곡으로 나갔다. 아울러 대부 자무환(茲無還)에게 병차 3백 승을 주어 협곡 땅 10리 밖에 영채를 세워놓으라 명했다.

한편 제경공(齊景公)은 제경공대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협곡 땅으로 나왔다. 재상 안영(晏嬰)이 배종했다.

그런데 제경공의 근신(近臣)중에 여미(黎彌)라는 사람이 있었다. 꾀가 많고 아첨을 잘하여 양구거와 더불어 제경공의 총애를 받는 자였다.

맹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었다.

여미(黎彌)가 은밀히 제경공의 처소로 들어갔다. 제경공이 물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어 왔습니다."

"좋은 계책이라니?"

"우리 제나라와 노(魯)나라는 예부터 원수간입니다. 이번 회맹에 대비하여 노후(魯侯)가 공자를 데리고 왔습니다만, 신이 본즉 공자(孔子)는 예만 알 뿐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맹회가 끝나면 주공께서는 노후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라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신이 내이(萊夷)의 군사 3백명을 악공으로 변장시켜 요란하게 음악을 울리겠습니다. 한창 음악을 울리다가 노후(魯侯)가 놀라는 틈을 타 노후와 공자를 잡아버리면 어찌 노(魯)나라가 우리 수중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 과인이 재상과 상의해보겠다."

여미(黎彌)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재상 안영(晏嬰)은 이런 일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반대할 것이 틀림없으니, 의논하지 마십시오. 신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경공(齊景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음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이었다.

제경공과 노정공은 단 위에 올라가 정해진 예법에 따라 두나라가 화친할 것을 맹약했다.

노나라측에서는 공자(孔子)가 증인이 되었고, 제나라측에서는 안영(晏嬰)이 증인이 되었다.

맹약이 끝나자 제경공(齊景公)이 노정공에게 말했다.

"이처럼 즐거운 날, 과인이 군후에게 음악을 선사할까 합니다."

그러고는 여미에게 악사들을 대령하라 명했다.

여미(黎彌)는 악공으로 변장한 내이의 군사 3백 명을 대령시켜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이 북치고 깃발을 휘두르고 칼과 창을 세운 채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흡사 전쟁터로 나가는 듯한 기세였다.

그들은 점차 노정공(魯定公)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까이 접근했다.

노정공(魯定公)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때 갑자기 한 사내가 일어섰다. 노정공을 보필하고 있던 공자(孔子)였다. 9척이 넘는 공자(孔子)는 제경공 앞에 우뚝 섰다. 이어 소매를 들어 예를 표하며 우렁찬 음성으로 말했다.

"제·노나라가 우호를 맺는 이런 좋은 자리에 군후께선 어찌하여 오랑캐 음악을 들으십니까? 지금 곧 중지시켜 주십시오."

조금도 위축됨이 없는 행동이었다, 여차하면 제경공에게 덤벼들기라도 할 듯한 표정이었다.

제경공(齊景公)은 갑자기 거대한 체구의 사나이가 자신의 눈앞에 서자 위축됨을 느꼈다. 그때 또한 사나이가 일어섰다. 제경공 옆에 앉아 있던 안영이었다. 6척 단구의 그는 공자 옆에 나란히 섰다. 안영(晏嬰)은 전날 밤 제경공과 여미 사이에 오간 말을 알지 못했다.

안영(晏嬰)은 제경공을 향해 말했다.

"공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공께선 예의를 잃지 마십시오."

제경공(齊景公)은 한편으로는 공자의 험악한 기세에 겁을 먹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제경공(齊景公)은 얼른 단 아래에 서있는 여미에게 명했다.

"음악을 중지시켜라!"

여미(黎彌)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자 화가 치밀었다.

그는 노정공과 공자를 망신시키기 위해 다시 청했다.

"이번에는 제(齊)나라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미의 속셈을 알지 못하는 제경공(齊景公)은 그 청을 승낙했다.

여미(黎彌)가 재빨리 진짜 악공들에게로 가서 속삭였다.

"너희들은 '폐구(敝筩)의 노래'를 불러라. 또한 배우들은 마음대로 재주를 발휘하라."

여미(黎彌)의 지시를 받은 악공과 광대들은 두 줄로 나누어 단 앞으로 달려나와 노래를 부르고 재주를 피웠다. 얼굴에는 얼룩덜룩한 색을 칠했고, 옷은 이상야릇했다. 그들은 펄쩍펄쩍 뛰기도 했고, 등실등실 춤추기도 했다. 두 나라 임금을 모신 자리에서 공연하기에는 낯뜨거운 짓거리였다.

'폐구의 노래'란 곧 오누이간인 제양공(齊襄公)과 문강의 음탕함을 읊은 노래다. 문강(文姜)은 노환공의 부인이었기에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노(魯)나라를 망신줄 작정이었던 것이다.

공자(孔子)는 대뜸 그들이 노정공을 욕보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경공에게 말했다.

"모름지기 필부로서 임금을 현혹시키는 자는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군후께서는 저 악사의 장(長)과 광대의 장(長)을 참하십시오."

제경공(齊景公)은 공자의 말을 못 들은 척 외면했다.

이에 용기를 가진 악공들과 광대들은 깔깔깔 웃어댔다.

그러나 공자도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다.

제경공(齊景公)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뜸 몸을 돌려 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제나라와 노나라는 이미 우호를 맺었으니 형제와 같다. 노나라 사마가 곧 제나라 사마다. 여봐라.
 신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頤)는 어디 있느냐? 당장 악공과 광대의 우두머리 목을 베어라!"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노나라 신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頤)는 나는 듯이 뛰어나와 각기 악공과
 광대의 우두머리를 한칼에 쳐죽였다. 그제야 나머지 악공과 광대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꿇
 어앉았다.
 놀라기는 제경공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공자(孔子)가 그렇게 과단성 있게 행동할 줄은 전혀 짐작도 못 했다. 크게 겁을 먹고 부랴부
 랴 맹회를 폐했다.
 노(魯)나라를 욱보이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셈이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제경공(齊景公)은 여미를 불러 꾸짖었다.
 "너는 공자(孔子)가 예만 알 뿐 용기가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그의 일거일동을 보니 공자만큼
 용기를 지닌 사람도 드물었다. 너로 인해 과인은 공연히 노(魯)나라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
 여미(黎彌)가 할말이 없어 꿇어앉아 있는데 곁에서 재상 안영이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지금이라도 노후(魯侯)에게 사죄하십시오."
 "어떻게 사죄하면 좋겠소?"
 "신이 듣기로, 소인(小人)은 자기 잘못을 사죄할 때 말로써 하지만 군자는 물건으로 사죄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노나라 땅을 세 곳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鄆)땅과 문양(汶陽)땅과 구음(龜陰)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공께서 이 세 땅을 노나라에 돌려
 주시고 사과하면, 노나라 군주와 신하들은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제경공(齊景公)은 안영의 말을 수락하고 지난날 빼앗은 바 있던 운, 문양, 구음 세 땅을 다 노(魯)
 나라에 돌려주었다.
 공자의 용기와 외교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라 할 수

제36장 공자(孔子)시대 (8)

공자는 대사구(大司寇)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기실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동반자는 삼환
 (三桓) 중의 하나인 계손사(季孫斯)였다.
 그 무렵, 공자의 학숙에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어 학문을 배우고 있었는데, 공자(孔子)는 그 중
 유능한 제자들을 계손사(季孫斯)에게 천거했다.
 이를테면 공자의 학숙(學塾)은 정치인을 배출해내는 사관학교나 다름없었다.
 공자(孔子)가 계손사에게 천거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자로(子路)와 자유(子有)를 꼽을 수 있다. 자로
 는 이름이 중유(仲由)로, 노나라 변(卞) 땅 사람이다.
 공자보다 나이가 아홉 살 아래다.
 자로(子路)는 성질이 거칠고 용맹을 좋아하였으며, 심지(心志)가 굳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수
 톱의 꼬리로 관을 만들어 쓰기도 했고, 수탉지의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에 차고 다녔다.
 그는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시정 불량배였다.
 심지어는 공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공자(孔子)가 예(禮)로써 대하며 인(仁)의 세계를 행동으로 보여주자 조금씩 바른길로 들어

섰으며, 마침내는 유복(儒服)을 입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자로(子路)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술선수범하고, 백성들의 일에 몸소 애쓰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자로(子路)는 그 대답이 성에 안 찻던지 다시 물었다.

- 그것뿐입니까? 더 보탬 것은 없습니까?

- 있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 바로 그것이다.

아는 것을 행하되, 처음과 끝을 같게 하라.

'지행합일(知行合一)'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제자 자유의 이름은 염구(冉求)다.

염구는 공자보다 29년 연하다. 자유(子有)도 공자로부터 늘 행(行)의 중요성에 대해 강론을 들었다. 그런데 자유(子有)는 성격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모양이다. 성품이 거친 자로(子路)와는 대조적이었다.

공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자로와 자유에 대해 다른 식으로 강론을 펼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자유(子有)가 물었다.

- 의(義)를 들었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바로 행해야 한다.

자로(子路)도 공자에게 같은 물음을 던졌다.

- 의를 들었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 부형(父兄)이 계시는데, 어찌 곧바로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대답이 다르다는 것을 안 또 다른 제자 자화(子華)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 감히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물음은 같은데, 어찌하여 대답은 다릅니까?

공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 자유(子有)는 머뭇거리는 성품이라 진취성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었고, 자로(子路)는 남에게 이기려고만 들기 때문에 억제시켜 주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자로(子路)나 자유(子有)는 공자의 천거를 받아 계손씨의 신하가 되어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든 대표적인 제자들이었다.

노(魯)나라의 수난은 그치지 않았다.

계손사의 가재인 양호(陽虎)가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간 지 4년 후인 BC 498년(노정공 12년).

이번에는 공산불뉴(公山不狃)가 또 난을 일으켰다.

공산불뉴 역시 계손사의 가신장(家臣長)으로 계손씨의 식읍인 비읍(費邑)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그해 여름, 계손사(季孫斯)는 공산불뉴가 지나치게 강성해지자 몹시 불안했다. 그래서 공자를 불러 의논했다.

"공산불뉴(公山不狃)가 양호를 본떠 또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오늘날 가신이 강성해진 것은 예법과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신하가 가병을 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성(城)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킬 근거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대부는 어떠합니까? 각자 성읍(城邑)을 소유하고 군사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경대부들에게 가병과 성읍이 없다면 어찌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킬 꿈을 꾸겠습니까?"

그대는 비읍(費邑)을 공실에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상하가 편안하고 반란도 영구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손사(季孫斯)는 공자의 말을 옳게 여겼다. 맹손무기와 숙손주구를 불러 삼환(三桓)의 재산 반납을 의논했다.

"공자의 말씀이 맞소. 우리가 재산을 반납하여 집안과 나라가 이롭게 된다면 무엇을 주저하리오." 세 사람은 이렇게 뜻을 모은 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읍과 성읍을 공실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소정묘(少正卯)가 알았다. 그는 앞에 얘기한 바와 같이 앞에서와 뒤에서의 말이 다른 사람이었다. 더욱이 노정공과 삼환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공자(孔子)를 몹시 시기하고 있었다. 소정묘는 삼환(三桓)이 재산을 반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심복인 숙손첩(叔孫輒)을 비읍(費邑)으로 보내 공산불뉴를 부추겼다.

- 조만간 공실에서 비읍의 성을 허물 것이외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니, 그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자신의 근거지가 소멸될 것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

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선불리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양호의 꼴이 되고말 것이 뻔했다.

그는 고심 끝에 노나라 상하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자(孔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리라 결심했다. 사람을 시켜 많은 예물을 공자에게 보내며 말을 전했다.

- 잠시 비읍(費邑)을 다녀가심이 어떠하신지요? 선생의 인의지도(仁義之道)를 배우고 싶습니다.

공산불뉴(公山不狃)가 공자를 끌어들이려 한 것은 양호와 같은 수법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양호는 잔꾀로써 공자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공산불뉴는 정식으로 그를 초빙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공산불뉴에게로 가지 않았다.

정중히 예물과 초청장을 비읍으로 돌려보냈다.

공자가 초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공산불뉴(公山不狃)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겠다.'

그는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다.

공산불뉴는 맹손씨의 가신장인 공렴처보(公斂處父)와 숙손씨의 가신장인 약묘(若貓)에게 통보하여 함께 곡부성으로 쳐들어가고 제안했다. 그런데 공렴처보와 약묘는 공산불뉴의 청을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공산불뉴(公山不狃)는 단독으로 곡부성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러할 때 숙손주구의 식읍인 후읍(郈邑)에서 뜻하지 않은 변이 생겼다.
 숙손씨의 가재인 약묘(若貓)가 그 부하 후범이란 자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후범(侯犯)은 약묘와 달리 힘이 장사이고 포악했다. 그는 약묘를 죽이고 자신이 후읍의 장(長)이 되었다.
 이에 숙손주구(叔孫州仇)는 후범을 치기 위해 맹손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양가는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후읍으로 쳐들어갔다. 후범(侯犯)은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후읍의 군사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숙손씨와 맹손씨는 좀처럼 그들을 토벌할 수 없었다.
 비읍(費邑)에서 군사를 기르며 곡부성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던 공산불뉴의 눈에 이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비쳤다.
 '숙손씨와 맹손씨가 모두 후읍으로 달려갔으니 곡부성에는 계손씨(季孫氏)만이 외로이 남아 있겠구나. 내 어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랴.'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군사를 거느리고 곡부성으로 쳐들어갔다.
 심복인 숙손첩(叔孫輒)이 성문을 열고 영접해주었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곧장 궁궁을 향해 달려갔다.
 다급한 것은 노정공이었다. 그는 즉시 공자를 불러 의논했다.
 "비읍의 반란군이 도성 안으로 쳐들어왔으니, 대관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공자(孔子)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궁중 군사는 허약합니다. 일단 궁을 나가 계손씨의 집으로 피신하십시오."
 노정공(魯定公)은 공자

제36장 공자(孔子)시대 (9)

노정공(魯定公)이 계손사(季孫斯)의 집으로 몸을 피한 같은 시각,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궁궁을 공격하고 있었다.
 궁중 수비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공산불뉴는 숙손첩의 안내를 받아 내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궁중 어디에도 노정공(魯定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노정공(魯定公)이 계손사의 집으로 피신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군사를 몰고 계손사의 집으로 향했다. 반란군이 대문을 부수고 대(臺) 위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한 사내가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공자였다.
 반란군은 대부분 비읍(費邑)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공자(孔子)가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다. 공자를 보자 주춤하며 자신들도 모르게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그때 공자의 입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희들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다. 주공이 여기 계신데, 너희들은 어찌 순리를 거스르려 하는 것이냐? 속히 무기를 버려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잘못은 처벌하지 않겠다."
 주변이 삼시간에 조용해졌다.
 반란군은 하나 둘씩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변에 당황한 것은 공산불뉴(公山不狃)였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臺) 안으로 진입하라!"

악을 써냈으나 몇몇 군사만 그에 호응할 뿐 대부분의 군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악에 반쳐 직접 대 위로 뛰어올라가 공자를 베려 했다. 그 순간 좌우에 매복해 있던 사마 신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頤)가 뛰어나오며 외쳤다. "역적은 함부로 성인의 몸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마라!" 공손불뉴(公山不狃)는 기겁초풍했다. 그는 좌우에 계손씨의 가병이 매복되어 있음을 알고 재빨리 몸을 돌려 밖으로 달아났다. 이어 숙손첩(叔孫輒)이 그 뒤를 따랐다. 겨우 곡부성을 빠져나온 그들은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오(吳)나라를 바라보고 달아났다. 이로써 '공산불뉴의 난'은 진정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맹손무기와 숙손주구도 후범의 난을 진압했다. 후범(侯犯)은 겨우 탈출하여 제(齊)나라로 망명했다. 양호에 이어 공산불뉴, 후범 등의 난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계손사(季孫斯)와 맹손무기(孟孫無忌), 숙손주구(叔孫州仇)는 서둘러 자로(子路)를 보내어 각 식읍의 성을 허물고 높이를 세 척쯤 낮추었다. 계손사를 비롯한 삼환(三桓)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공자는 이 모든 게 소정묘의 농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자(孔子)는 모든 신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사구의 자격으로 소정묘(少正卯)를 탄핵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소정묘가 교묘한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이 같은 말에 신료들은 고개를 갸웃 흔들었다. "소정묘(少正卯)는 우리 노(魯)나라에서 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어찌 공산불뉴의 난이 소정묘의 농간이라고 하십니까?" 공자(孔子)가 다시 노정공에게 아뢰었다. "소정묘(少正卯)는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고, 행동과 말이 같지 않아 알게 모르게 인심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저런 자를 죽이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신의 벼슬은 대사구(大司寇)입니다." 그러고는 좌우 무사를 돌아보며 추상같은 명을 내렸다. "군사들은 저자를 속히 참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소정묘를 결박했다. 결국 소정묘(少正卯)는 궁정 앞뜰로 끌려나가 참수형에 처해졌다. 모든 신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이후로 노(魯)나라 정치에 공자의 뜻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대사구 겸 재상이 된 공자(孔子)는 먼저 궁중 기강을 세우고 관료들에게 예의를 가르쳤으며 엄치를 알게 했다. 그러자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 갔다. 사마천은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를 통해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공자(孔子)가 정치를 맡은 지 3개월이 지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속이지 않았다. 남녀가 길을 갈 때는 따로 걸었으며,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졌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여행자들은 관리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모두 잘 접대를 받아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바야흐로 공자의 이상(理想) 정치가 노나라 땅에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때가 BC 498년(노정공 12년).

공자의 나이 54세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공자의 이상 정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공자의 예법과 인의지도(仁義之道)로 인해 노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노나라 공실과 경대부들은 다시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노(魯)나라 정치가 다시금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 원인으로 재미난 일화가 전해온다.

그 무렵 제(齊)나라는 명재상 안영이 세상을 떠나고 제경공의 총신인 대부 여미(黎彌)가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제경공(齊景公)은 노(魯)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가는 것을 보고 몹시 불안해했다.

"공자가 정치를 잘하면 노(魯)나라는 패권을 잡을 것이요, 노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우리 제(齊)나라를 억압하려 들 것이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부 여미(黎彌)는 잔꾀를 내는 데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제경공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공자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어찌 그를 방해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수로 공자의 정치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공께서는 신의 계책을 들어보시렵니까?"

"말해보라."

"신이 듣건대 매사가 안정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주공께서는 노후(魯侯)에게 우호를 두터이 한다는 핑계로 음악 잘하는 미인들을 많이 보내십시오."

"노후(魯侯)가 그 미인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틀림없이 정사(政事)에 게을러질 것이요, 자연히 공자(孔子)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는 노(魯)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니, 공자 없는 노나라가 어찌 패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묘책이로다!"

제경공(齊景公)은 몹시 기뻐하며 그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 80명을 뽑아들여 10분대(分隊)로 편성했다. 그리고 그 미인들에게 예쁘게 수놓은 비단옷을 입힌 후 밤낮없이 노래와 춤과 음악을 가르쳤다.

이때 가르친 음악이 '강악(康樂)'이며, 그 춤을 '강악무(康樂舞)'라고 한다.

강악은 전에 없이 아름다운 곡조였으며, 강악무는 황홀하기 그지없어 보는 사람의 넋을 빼놓을 정도였다.

제 36장 공자(孔子)시대 (10)

마침내 제경공(齊景公)은 그 미인들과 양마 120필을 사신에게 딸려 노(魯)나라로 보냈다. 제(齊)나라 사신은 곡부성 남문에 이르러 두 곳에다 비단 장막을 쳤다.

동쪽 비단 장막에는 120필의 말을 매어두고, 서쪽 비단 장막에는 미인들을 머물게 했다. 그러고는 삼환 중의 한 사람인 계손사(季孫斯)의 집으로 향했다.

그 무렵, 계손사(季孫斯)는 나라가 태평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자 틈만나면 즐거운 일을 찾고 있었다. 그런 중에 제(齊)나라 사신이 와서 미인 악사들을 바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호기심이 일었다.

"내가 한 번 살펴본 후 주공에게 바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계손사(季孫斯)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남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제(齊)나라 사신은 미인들이 공연하는 강악과 강악무를 계손사에게 보여주었다. 음악과 노래와 춤은 황홀했다. 노랫소리는 가는 구름을 멈추게 하고, 춤추는 자태에서는 향기가 일었다.

생전 처음 그런 춤과 음악과 노래를 관람한 계손사(季孫斯)는 정신이 빠졌다. 온몸이 녹는 듯하고, 마음이 산란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저녁이었다.

이튿날 계손사(季孫斯)는 궁으로 들어가 노정공을 알현하고 제나라에서 미인 80명을 보내왔음을 보고했다. 노정공의 눈빛이 달라졌다.

"제(齊)나라에서 왔다는 그 여악(女樂)들은 지금 어디 있소?"

"남문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공께서 보실 생각이시라면 신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공의 행차가 알려지면 백성들이 불편해질 것이니, 미복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정공(魯定公)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계손사와 함께 남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장막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계손사(季孫斯)는 심복 부하 한 사람을 먼저보내 제(齊)나라 사신에게 귀띔했다.

"우리 주공께서 미복 차림으로 오셨소."

제나라 사신은 미인들을 불러놓고 당부했다.

"노(魯)나라 군주가 미복으로 오셨다고 한다. 너희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온갖 재주를 다 보여봐라."

제(齊)나라 미인 악사 80명은 더욱 교태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소매가 나부낄 때마다 장막 안에는 무지개가 서는 듯했다.

10대(隊)의 미녀들은 번갈아 등장하여 자신들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했다. 평생 고루한 음악만 들어오던 노정공(魯定公) 또한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다.

궁으로 돌아온 노정공(魯定公)은 그 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미인들의 노래가 귓전에 맴돌고 춤추는 자태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음날 아침, 노정공(魯定公)은 혹시나 공자가 제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을 반대할까 두려워 일부러 계손사만을 부르고 제(齊)나라 사신을 맞아들였다. 노정공은 제나라 사신에게 황금 1백 일을 답례로 하사했다. 미인 악사 80명과 말 120필을 접수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정공(魯定公)은 80명의 여악 중 30명을 계손사에게 내주고 나머지는 내궁에 머물게 했다.

그때부터 노정공과 계손사(季孫斯)는 각기 낮이면 노래와 춤을 즐기고 밤이면 미인들을 끼고 술을 마셨다. 조회를 여는 것이 귀찮아 열흘이 넘도록 정청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이 공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성질 급한 제자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님이여, 이제 노(魯)나라를 떠날 때가 왔나봅니다."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아직 이르다. 며칠 후면 교제(郊祭)를 올리는 날이다. 주공이 교제를 마치고 나서 그 조(胙)를 대부들에게 나누어주면 이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를 나누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교제(郊祭)란 남쪽 교외로 나가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참고로 북쪽 교외로 나가 하늘에 올리는 제사는 사제(社祭)라고 한다.

또 조(胙)는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고기로서, 제사가 끝나면 군주는 신하들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이 관례였다. 신하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마침내 교제날이 되었다.

노정공과 계손사 등 문무백관은 남쪽 교외로 나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정공(魯定公)은 제사를 지내자마자 부리나케 궁으로 돌아갔다.

제(齊)나라에서 바친 미인 악사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제사를 지낼 때 쓴 '조(胙)'를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잊고 말았다.

제관이 궁으로 들어가 아뢰었다.

"조(胙)를 나눠주십시오."

노정공은 귀찮은 표정으로 아무렇게나 말했다.

"과인은 바쁘다. 계손사에게 나눠주라고 일러라."

하지만 계손사(季孫斯) 역시 제사가 끝남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 강악과 강악무를 즐기고 있었다.

결국 조(胙)는 분배되지 않았다.

그 날 밤, 공자(孔子)는 길게 탄식했다.

"아, 나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지 않았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다음날 아침, 공자(孔子)는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곡부성을 떠났다.

계손사에게 베풀하던 자로(子路)와 자유(子有)도 관복을 벗어던지고 스승 공자의 뒤를 따랐다.

공자(孔子)가 노(魯)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려 한다는 소문은 계손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깜짝 놀라 악사장 기(己)를 보내 공자를 데려오게 했다. 악사장 기가 서둘러 곡부성을 나섰다.

그때 공자(孔子)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북쪽 교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기(己)가 뒤쫓아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노나라를 떠나시는 겁니까?"

공자(孔子)가 그윽한 눈길로 기(己)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노래로 대답해도 괜찮겠는가?"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아 거문고를 타며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군주가 여인의 말을 믿으면

군자는 떠나가는도다.

군주가 여인을 가까이하면

사직은 사라지는도다.

이런 그들 속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이렇게 나의 세월을 보내리라.

악사장 기(己)는 공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다.

그가 성안으로 돌아오자 계손사(季孫斯)가 불러 물었다.

"공자가 뭐라고 하던가?"

기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계손사는 크게 탄식했다.

"아아, 공자(孔子)는 내가 제나라 무녀(巫女)를 받아들인 것을 책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자는 노(魯)나라를 떠나갔다.

이 떠남이 곧 그 유명한 공자의 '천하 역유(歷遊)'다.
이때 공자 나이 56세.
따르는 제자는 수십 명에 달했다.